

환황해시대 충남의 對중국 전략

박인성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장
2016. 9.28.

차례

1. 중국 굴기와 충남

- 충남의 신성장 동력
- 환황해경제권 ← 중국 굴기

2. 중국 환보하이지구의 중국내 위상

- 개혁개방 이후 중국경제의 발흥과정
- 환보하이지구의 범위와 개황
- 환보하이지구의 발전전망과 과제

3. 충남의 현실과 과제

4. 충남형 對중국전략

- 환황해권 공간범위 설정
- 충남형 對중국 전략 → 방안

1. 중국 굴기와 충남

• 충남의 신성장동력

- 1992년 8월, 한중수교 이후, 충남을 포함한 서해안 지역에 ‘서해안 시대’, ‘환황해경제권’, ‘동북아경제권’ 이란 용어가 화두로 대두
→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 구상 논의 본격화
- 2001년 12월에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 인천-목포간 서해안축 형성
- 신(新)발전동력 → 서해안축의 중심에 위치 → 산업, 물류, 관광 등 영역에 중국의 경제성장과 연계된 새로운 기회와 도전의 기운 형성
- 최근 중국정부의 경제정책기조가 “신상태” (新常态: New Normal) 로 전환 → 7% 이하의 중속성장과 질적 관리, 내수시장 육성 및 수입 대체기술개발 장려 → 중간재와 부품의 대(對)중국 수출 특수에 의존해 온 충남경제에 위기

환황해경제권 ← 중국굴기

- ‘환황해경제권’ 동력의 발원지는 중국
 - 중국의 황하이(黃海)와 보하이(渤海), 그리고 우리 서해와 연접한 국가와 지역 간의 교역·교류를 촉진하면서 역내 소지역 시장권(市場圈) 또는 국지경제권(局地經濟圈) 형성을 촉진
 - 최근 15년간 우리 수출동향중 가장 주목되는 변화동향은 미국의 지위 하락과 중국의 부상.
 - 2000-2014년 기간중 수출액 점유비중이, 미국시장은 22% → 12%로 대폭 감소.
 - 반면에 중국시장은 2000년 11% → 2014년 25%로 급증
 - 아세안국가로의 수출액 점유비중은 2001년 11% → 2014년 15%.(<표 1> 참조)

<표 1> 주요 국가별 교역비중 변화추이(2001-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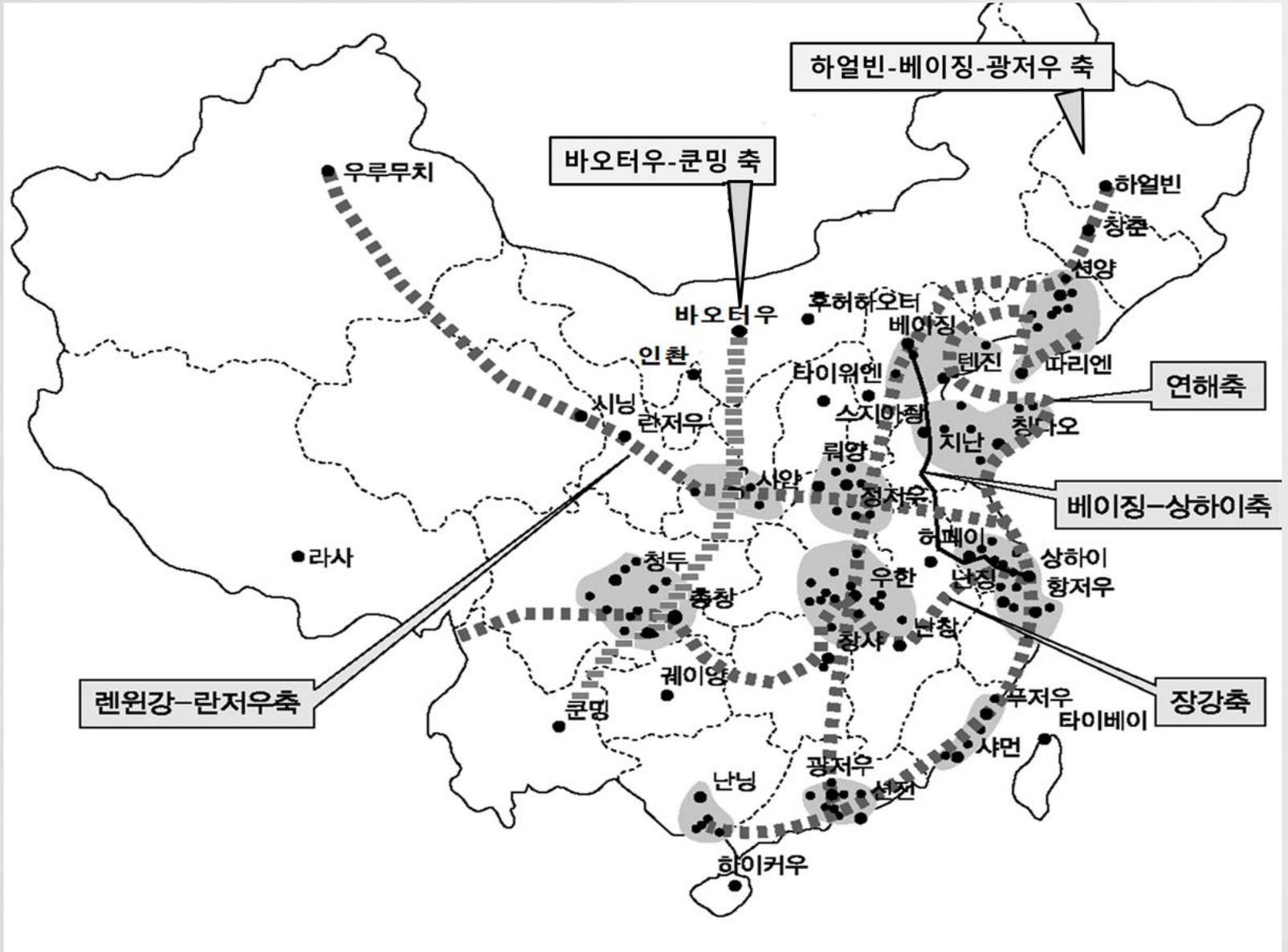
연도	한국 ⇔ 미국		한국 ⇔ 중국		한국 ⇔ ASEAN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2000년	18	22	8	11	11	12
2002년	15	20	11	15	11	11
2004년	13	17	13	20	10	9
2006년	11	13	16	21	10	10
2008년	9	11	18	22	9	12
2010년	10	11	17	25	10	11
2011년	9	10	16	24	10	13
2012년	8	11	16	25	10	14
2013년	8	11	16	26	10	15
2014년	7	12	17	25	10	15

- 충남경제가 수도권과 경부축에의 의존성을 줄이고, 중국과의 직접 교역·교류를 통해서 서해안축 중심에서 새로운 발전동력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기회와 도전 공간 확대
 - 세계화(globalization)와 지방화(localization)추세에 부응하면서, 지방 층차(層次)에서 초국경(cross-border) 교류협력을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전략적 사고 필요
- ‘환황해경제권’의 형성과 발전에 따라 형성되어 흘러오는 ‘외부동력’을 활용해 충남의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
 - 기후변화, 환경, 신(재생)에너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발전, 그리고, 3농(농업, 농촌, 농민),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과 같은 상향식 주민운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변화와 혁신 흐름과 어떻게 연결하고 조율해 나갈 것인가?
 - 기존의 국민경제 안의 지방경제라는 틀을 깨고...

2. 중국 환보하이지구의 중국내 위상

- 개혁개방 이후 중국경제의 발흥 과정
 - 1980년대: 선전(深圳), 주하이(珠海), 산터우(汕頭) 경제 특구와 광저우를 중심으로 하는 주강삼각주지구에서 경제 발흥 시작
 - 1990년대: 상하이 푸둥신구 개발을 시작으로, 상하이를 중심으로 저장성(浙江省)과 장쑤성 남부(苏南)지구로 구성된 장강삼각주지구의 경제발전 본격화
 - 2000년대: 동부연해지구내 남북간 격차 문제 대두 → 지역발전정책 중점이 북쪽으로 이동 → 징진지(京津冀: 北京-天津-河北) 지구와 산둥성과 라오닝성을 포함하는 환보하이(渤海)지구의 경제발전속도가 주강삼각주지구와 장강삼각주지구 보다 빠르게 진행
 - 2008. 3: 국무원이 텐진(天津)시가 제출한 ‘빈하이신구(滨海新区)종합연계개혁시험방안’ 비준

중국의 국토발전축



- 최근에는 중국정부가 경제정책기조를 ‘신상태’로 전환
 - 양적 성장을 통해 축적해 온 자본과 외환보유량을 바탕으로 ‘해외진출(走出去)’을 통한 국내의 과잉생산 해결방안 모색·추진
 - ‘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一帶一路)’ 건설 → ‘아시아 기초시설투자은행(AIIB)’ 조직-운영
 - 동남아와 중앙아시아 국가에 해외경제특구 개발

중국 육상/해상 실크로드 전략(一帶一路)



‘환보하이지구’의 범위와 개황

- 행정구역 구분에 기초해, ‘환보하이 (環渤海) 지구’의 범위를 베이징, 텐진, 허베이성, 즉 징진지(京津冀)지구, 그리고 랴오닝성(遼寧省), 산둥성의 2개 직할시와 3개 성(省)으로 확정 ← 전국 인구의 17.8%, 국토면적의 5.4%
 - 베이징, 텐진 2개 직할시와 5개 지대 포함
 - 텐진빈하이신구(滨海新区)
 - 랴오닝성 연해경제지대
 - 산둥성 황하삼각주 → 산둥반도 남색경제구
 - 허베이 차오페이디엔신구(曹妃甸新区)
 - 허베이 보하이신구(渤海新区)
 - 주요 중심도시: 베이징, 텐진, 선양(沈阳), 따리엔(大连), 지단(济南), 칭다오(青岛), 바오딩(保定), 스자좡(石家庄) 등

- 최근에 중국정부가 ‘징진지(京津冀)’ 일체화 발전 전략을 중점 추진하면서, 베이징-톈진-허베이를 포함한 ‘환보하이(環渤海)지구’ 성장속도가 장강삼각주와 주강삼각주 지구를 추월
 - 중국의 연해지구 개발·개방 정책의 무게중심이 남에서 북으로 이전하면서 혁신과 기술창신(技術創新) 가속화와 함께 이 지구의 발전이 더욱 활발히 진행될 것
 - 국가발전전략에 포함된 톈진빈하이신구와 랴오닝성 연해경제지대, 산둥성 황하삼각주, 그리고 허베이성 보하이(渤海)신구와 차오페이티엔(曹妃甸)신구 포함
 - 이들 5개 경제구의 면적 합계는 총 9만km²로 광둥성 선전(深圳)경제특구의 45배, 상하이 푸둥신구의 74배 규모(<표 2>)

<표 2> 중국 3대 경제권별 경제구 현황(2009)

경제권	경제구	면적(km ² , %)	경제총량 (억위안, %)	산출밀도 (억원/km ²)
환보하이(環渤海)지구	톈진(天津) 빈해신구	2270(19.0)	3810.7(50.7)	1.68
	랴오닝(辽宁) 연해경제지대	56500(38.2)	7835.3(52.0)	0.14
	산둥 황하삼각주	26500(16.9)	5014.8(15.3)	0.19
	허베이 차오페이디엔(曹妃甸)신구	1944(1.0)	650(3.8)	0.33
	허베이 보하이(渤海)신구	2375(1.3)	240(1.4)	0.10
주강삼각주지구	선전(深圳) 경제특구	1992(100.0)	8201.3 (100.0)	4.12
장강삼각주지구	상하이 푸동(浦东)	1210(19.1)	4001(26.6)	3.31
	쭈저우(苏州) 공업원구	288(3.4)	1120(14.5)	3.89

주: ()는 소속 성, 시내 점유비중, 출처: 2011 中国城市统计年鉴, 14쪽

환보하이지구의 발전전망과 과제

- 경제의 세계화와 ‘환황해경제권’의 발전이 진행되면서, 서해안축의 중심에 위치한 충남에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 창출의 기회가 확대되고 있음
 - 충남경제가 중국을 중심으로 생성되고 있는 외부의 발전 동력을 어떻게 견인, 흡수할 것인가?
 - 변화와 발전동력의 진원지인 중국의 발전동향과 영향을 올바르게 파악, 분석하고, 국민경제의 틀을 뛰어넘는 능동적 전략적 대응체제 구축
 - ‘13차5개년계획(十三五規劃: 2016 ~ 2020)’에서는 ‘징진지’ 협동발전을 3대 지역발전전략중 하나로 제시
 - 2011년, ‘산동반도 남색경제구발전계획(藍色经济区发展规划)’을 국가발전전략으로 확정하고, 해양경제 확대 관련 중점사업들 활발히 추진중

3. 충남의 현실과 과제

- 대내적으로는 수도권 규제로 인한 반사이익 감소, 대외적으로는 중국경제정책 기조의 ‘신상태(新常態)’로 전환에 따른 경제구조의 취약점이 드러나고 있음
 - 충남경제의 기본동력은 수도권 규제로 인한 반사이익으로 구축된 제조업과 이를 기반으로 중국의 고도경제성장에 따른 부품 및 중간재의 對중국 수출 특수 혜택이었음
 - 2015년 충남의 對중국 수출 비중이 43.9%이고 타이완과 홍콩지구까지 포함하면 3/5 비중을 점한다. 그러나, 최근 중국경제가 ‘신상태(新常態, New Normal) 기조로 전변(转变)하면서 對중국 중간재 수출 특수효과 급감-소멸
 - 2001~2009 : 9.0% → 2010~2012: 3.8% → 2014년 1/4: 2.9%, 2/4: 2.5%, 3/4: -8.7%, 4/4: -14.9% → 2015년 1/4: -8.1%
 - 충남의 주력산업인 석유화학은 이미 중국에 추월 당했고, 제철도 악화 추세임
 - 전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자동차 산업의 비교우위도 예상보다 빠르게 소멸될 것...

- 2015년 방한 요우커(游客)중 충남지역 방문자 비중 0.7%(대전, 충북, 세종 포함한 충청권 전체 1.3%)
 - 2007년 107만(16.6%) → 2011년 222만(22.7%) → 2014년 613만(43.1%) → 2015년 547만명(메르스 영향)
 - 중국인 출국 요우커수: 1억 900만명(2014) → 1억 2천만명(2015)
 - 해외 소비액: 2014년 1,648억 달러(전년대비 28% 상승) → 2015년 1,940억달러로 예상됨
- 국제 해상운송과 항공교통망이 없음.
 - 서해안축의 중심에 위치하고, 당진, 서산, 태안, 홍성, 보령, 서천 6개 시·군이 중국의 황하이(黃海)로 연결되는 서해바다에 접하고 있지만, 해상운송과 항공교통 기반인 항만과 공항 시설의 수준이 국내 지자체중 가장 취약함

- ‘환황해권’의 지리적 범위를 중국 대륙전체는 물론 일본과 동남아 까지 포괄하는 광역적 범위로 설정하고 있으나 하위단계의 세부 전략의 구체성과 실천과제에 대한 체계적 전략 부족 ← 중국의 현황과 주요 정책동향을 충남의 입장과 관점에서 파악, 분석, 반영하기 위한 시도와 노력 미흡

4. 충남형 對중국전략

- 환황해권 공간범위 설정
 - 충남의 대(對)중국 전략 맥락에서, ‘환황해권’의 개념과 공간적 범위를 전략적으로 설정 → 전략적 타깃지역 선정(설정)
 - 충남의 능력과 동원 가능한 자원 등을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 관점에서 단계별로 구분, 설정
 - 지역 현황 및 주요 정책동향 파악, 분석
 - 환보하이(環渤海)경제권 발전
 - 허베이성과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
 - 산둥성의 남색경제(藍色經濟) 발전전략
 - ‘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一帶一路)’ 건설 전략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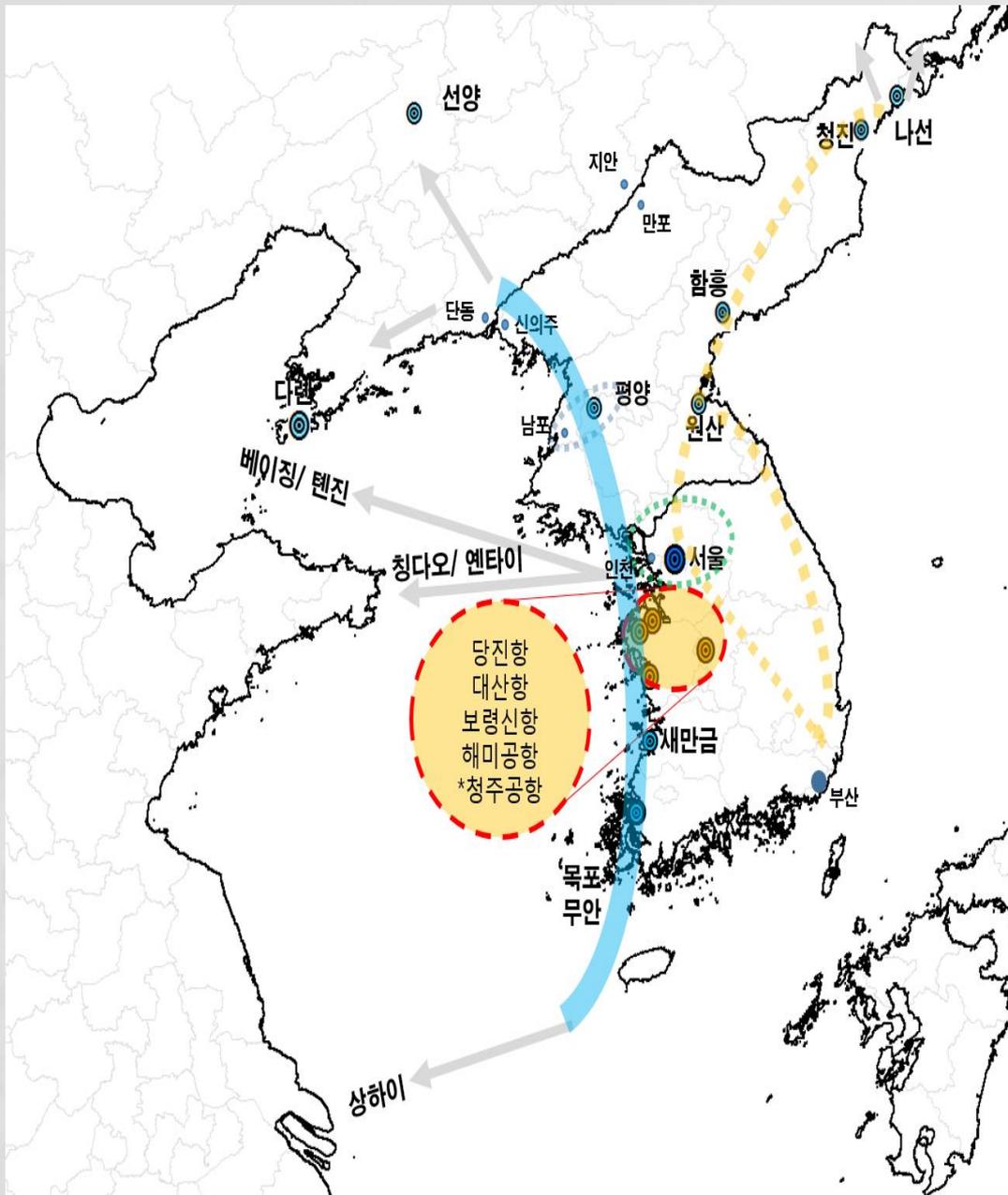
환황해 프로젝트 권역



- I 권역: 충남도와 20년 이상 자매결연 관계인 허베이성을 포함하는 징진지(京津冀)지구와 충남도내 15개 시,군과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교류 파트너 시(市),현(縣)이 가장 많은 산동성으로 구성되며, 2015년 총인구 약 2억 990만명, 면적 약 37.5만 km^2 .
 - 참고: 충칭남도 면적 0.82만 km^2 , 남한면적 약 10만 km^2 임.
- II-1권역: 랴오닝성(遼寧省)을 포함하는 동북3성지구로 총인구 약 1억 947만명, 면적은 약 80.8만 km^2 .
- II-2권역: 장쑤성(江蘇省)을 포함하는 장강삼각주지구로 총인구 약 2억 2074만명, 면적 35.5만 km^2 .

〈표 3〉권역별 기본현황(2015)

구분		1인당 GRDP(달러)	전국 순위	면적(만km ²)	인구규모 (만명)	비고
중국 전국		8026		963.4	137,349	
I 권역 (京津冀, 산동성)	베이징	17064	2	1.6	2171	총인구: 2억 990만명 총면적: 37.5만km ²
	텐진	17334	1	1.2	1547	
	허베이성	6463	20	18.9	7425	
	산동성	10302	10	15.8	9847	
II-1권역 (동북3성)	랴오닝성	10520	9	14.8	4382	총인구: 1억 947만명 총면적: 80.8만km ²
	지린성	8325	12	18.7	2753	
	헤이룽장성	6336	21	47.3	3812	
II-2권역 (장강삼각주)	상하이	16560	3	0.6	2415	총인구: 2억 2074만명 총면적: 35.5만km ²
	장쑤성	14128	4	10.7	7976	
	저장성	12466	5	10.2	5539	
	안후이성	5779	25	14.0	6144	



- 중-북 접경지역에서 랴오닝성 단둥(丹東)-신의주, 지린성(吉林省) 지안(集安)-만포와 투먼(圖們)-나선 통로 등 중-북 간 교역 및 교류를 통한 연결축을 형성·발전
 - 중국의 단둥 → 북한의 신의주-평양-남포축 → 해주 → 개성 → 경기만 북부 → 서울-인천 수도권 → 충남의 당진-서산-홍성-태안-보령-서천 지역 → 새만금지구 → 목포까지 연결하는 ‘한반도 서해안축’ 형성·발전

충남형 대(對)중국 전략-원칙과 방향

- 추상적 담론과 실천과제 구분 추진
 - 아시아의 지중해, 건강, 평화--소통--통일, 성장의 바다
 - 실천과제 및 추진전략 → 공간-시간 단계 구분
- 중국의 황하이(黃海) 및 보하이(渤海) 연해지구 도시들과 우호협력 교류협작관계를 구축·활성화 하면서, 지역발전동력 창출
 - 충남의 입장에서 ‘선택과 집중’ 원칙 하에, 중국의 황보하이(黃渤海) 연해지구중에서 전략적 우선순위를 정하고, 주요 현황과 정책동향을 파악 → 충남의 특성과 능력을 기초로 현안사업과 연결
- 현안과제와 사업들을, 자력추진사업과 국책사업화 대상으로 구분
 - 계획과 내용은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지만, 실천단계에서는 동시 병행추진

- ‘환황해권 시대’ 라는 ‘큰 흐름’ 에 적응하면서, 함께 들어 오고 파생되는 부정적인 요인들을 극복할 수 있는 ‘작은 운동’ 들을 현장에서 조직하고 상향식으로 활성화 추진
 - 대기오염과 황보하이(黃渤海) 수질오염, 토지구입 문제 등에 대한 대응정책 수립
 - 중국의 환경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 및 녹색성장 지향의 발전 패러다임 구축.
 - 1980년대에 우리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한 연평균 황사일수는 2.9일이었으나, 2000년대에는 9.8일로 증가

- 대(對)중국전략과 연계한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 주체”와 “창출된 이익의 해당지방과 주민 귀속” 최 우선·최대화 원칙 견지 및 제도화
 - 3농혁신, 사회적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 농수산업 6차산업화 등 분야에서 앞서가는 충남의 비교우위와 축적된 경험을 대(對)중국 교역·교류전략에 효과적으로 연결 활용
- 한-중 지방간 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한-중-북 지방차원 삼각협력의 공간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충남형 對중국 전략방안

• 전략적 대응체제 구축

• 對중국전략 총괄기획 및 지원 기능조직 확충

- 도(道): 기획조정실 환황해프로젝트팀+경제산업실 중국팀
- 충남연 중국연구팀: 충청중국포럼(월례), 중국동향과 진단(격월간)

• 교류범위 및 파트너 선정 → 지역관련 현황 및 주요 정책 동향 파악 →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 시범선도사업 설계 → 집중지원·성공사례 창출

- 유관기구와의 교류 및 공동연구 추진 →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 지역 현안과제와 사회단체 및 기업의 對중국 교류와 내수시장 개척분야와 연결, 확대
- 선택과 집중 원칙 견지

• 국책사업 발굴과 연계

- 對중국 기초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 충남도와 15개 시·군 對중국 교류네트워크 관리 및 강화
 - 충남도: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성(省), 자치주(延邊조선족 자치주)
 - 15개 시·군: 자매결연 11개, 우호협력 15개 市, 縣, 區
 - 파트너지역 및 교류단체별 특성 파악과 중점추진 분야 설정
→ 전략적 재검토, 조정, 확대, 활성화 전략 추진
 - ‘정부 주도 행사참여’ 에서 민간과 기업분야 교류로 확대, 다양화 추진
 - 지방차원 한중 교육 및 교류협력의 ‘新모델’ 창출
 - ‘충청중국포럼’ : 지방차원의 한중교류-학습- 정보 및 경험 교류-네트워크 관리
 - ‘중국동향과 진단’ : 지방 차원의 한중교류협력 관련 정보 정리-축적
 - 중국 아카데미 → 도와 시·군 순회 개최, 강연·토론

• 시범선도사업 발굴-선정

- 설계-집중지원 → 성공사례 창출
- 사업 주도권과 수익을 지역과 주민에 귀속 ← 원칙
 - 소규모-상향식-내발적 발전
 - 국책사업화를 위한 프로그램화 구상 병행 추진
 - 기 추진중인 공무원 해외연수와 해외교류자치단체 공무원 초청사업 등을 정책연수관광부문 교류협력사업과 연계, 확대 추진
 - 3농혁신 및 환경생태 성공사례 체험 및 정책연수관광상품 개발
 - 생태환경체험 및 교육도장(서천), 한중해양교류사 박물관(태안) 등 → 한-중 학생, 교사, 공무원 기업체 직원 교육연수프로그램과 연결
 - 시·군에서 진행중인 친환경 고품질 농산품 사업, 로컬푸드-지역순환식품-도농상생복합단지-학교급식지원 사업 등

• 중점추진과제

- 한-중 지방간 인프라네트워크 구축-관리-운영
 - ‘충청중국포럼’ 활성화 및 확대: 공무원 → 사회단체 → 기업 → 중국아카데미
- 충남형 對중국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개발-운영
 - 독립대학 특성화 발전 추진 → 중국-해양-관광분야
 - 중국대학과 합작운영 -- 우수 중국인유학생 유치 추진
 - 충남공무원교육원 정책연수프로그램과 연계운영
 - (가칭)충남중국아카데미 설립-운영

- 충남형 요우커(游客) 유치 및 마케팅 모델 개발
 - ‘요우커(遊客)’에 대한 개인, 가족, 팀별 개별 관광객 대상별 유형화 → 지역 특성 반영 → 단계별 대응전략 구분 수립 → 추진 → 성공사례
 - 지역내 중국인 유학생 네트워크 조직관리 → 충남 관광지 홍보와 장소마케팅과 연결 → 팸투어 및 효도관광 조직 실시
 - 지역기반 중국전담여행사 합작건립-운영 ← 對중국 교류 파트너 중국 지방정부와
- 서울-청주공항-충청권 연계관광루트 개발 → 관광, 문화융성전략 설계 → 한중교역 및 경험 사업과 연계

- 3농: 충남의 ‘3농혁신’ 성공경험 및 사례를 對중국 정책연수관광상품화 추진
 - 중국정부의 ‘三農’ 관련 주요 관심사는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 ‘농민전업합작사’ 활성화, 농업현대화와 선도기업 활성화, 도농(城乡) 일체화 건설, 농민의료합작 및 복지 확대, 식품안전, 농촌체험관광 등
 - ‘3농’ 혁신 관련경험과 성공사례를 중국 황·보하이 연해지구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및 연결고리로 활용
 - 흥동마을(홍성), 알프스마을(청양), 환경생태마을(서천, 태안) 등
 - 여가농업, 농어촌 체험관광사업, 행복마을 만들기,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확충, 지역순환식품유통구조 구축, 관광두레 조성, 문화생태 탐방로, 농촌체험활동, 어촌관광 활성화 등

感谢!
Thank you!